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여성 ACOA의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가족기능, 부모와의 애착,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김 혜 련

(서울여자대학교)

전 선 영

(서울여자대학교 강사)

김 정 희

(서울여자대학교 강사)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알코올 중독자를 아버지로 둔 여성 성인자녀들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즉,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자로 둔 여성 ACOA들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가족기능, 부모와의 애착,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는 463명의 여대생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에 160명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중독자 선별척도, 부모와의 애착 척도, 생활만족도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Beck의 우울 척도, 가족환경 척도 등이 조사되었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심리사회적 적응과 가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부모와의 애착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은 부모와의 애착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가족기능은 부모와의 애착과 심리사회적 적응, 구체적으로 자존감과 생활만족도에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은 가족기능과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유무는 여성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변수로만 여성 ACOA의 적응에서의 어려움을 설명하려는 가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중독자를 아버지로 둔 여성 ACOA들에 관한 임상적 함의와 이론적 함의들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여성 ACOA,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심리사회적 적응, 가족기능, 부모와의 애착

*이 논문은 서울여자대학교 2004학년도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

1. 문제제기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중독자 성인자녀(ACOA: Adult Children of Alcoholics)의 수는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0% 정도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으로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최윤정, 2003; 노충래·허지인, 2003). 지역사회 샘플을 사용한 연구 결과에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청소년(COA: Children of Alcoholic)이 30% 정도라는 보고에서 ACOA의 수도 그 정도임을 유추할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 중의 31.5%가량이 ACOA인 것으로 나타났으며(Fischer et al, 2000: 153), 18세에서 70세의 연령에 속한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에도 참여자의 30% 정도가 ACOA인 것으로 나타났다(Churchill, Broida and Nicholson, 1990).

이와 같이 ACOA의 수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ACOA에 대한 정의는 약간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ACOA를 부모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에서 성장한 성인자녀라고 보는 학자들(Churchill, Broida and Nicholson, 1990; Neff, 1994; Werner, 1986; Clair and Genest, 1987)이 있는가 하면, ACOA를 ACOA 신드롬 즉, 성인아이(adult child)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 성인아이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학자들(고병인, 1997; 박현선·이상균, 2001; 이상균, 2003; 박현선, 2003)도 있다. 자조집단인 AI-Anon에서는 ACOA를 성인아이 라는 표현으로 사용한다(Cutter and Cutter, 1987).

이와 같이 동일한 집단(ACOA)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에서 성장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된 자녀(성인자녀)를 지칭하는 반면에, 다른 한 편에서는 성인이지만 아이와 같이 미성숙함이 있는 알코올 중독자 성인아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많은 문헌에서 성인이라고 함은 어린아이일 때에 성인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나 문제들을 조속하게 다루는 동시에 성인이 되어서는 해소되지 못한 어린시절의 문제를 아직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이상균·박현선, 2000: 147 재인용).

한편 성인자녀라는 표현은 다른 연구에서는 성인이 된 자녀의 의미로 자연스럽게 사용(엄명용, 2001; 김학주, 2002; 김미혜 외, 2004)되고 있다. 이러한 혼돈은 ACOA에 관한 연구들이 치료세팅에서 만난 임상샘플을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임상문헌(clinical literature)과 알코올 중독자나 그 자녀가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비임상 샘플을 대상으로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집단의 성인자녀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경험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ACOA를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에서 성장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된 자녀로 보는 경험적 연구의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ACOA에 대한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임상문헌에서는 ACOA들을 병리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술하고 있고, 경험적 연구에서는 비임상 샘플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면서 ACOA와 non-ACOA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주력하여 연구하고 있다. 즉, ACOA 는 non-ACOA에

비하여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고, 결혼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며, 자존감도 낮고, 더 우울해 한다고 보고하는 연구(Clair and Genest, 1987 재인용; Parker and Harford, 1988; Woititz, 1983; Churchill et al., 1990)와 높은 수준의 디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ACOA는 non-ACOA와 비교하여 볼 때에 기능적이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도 차이가 없으며, 알코올 소비에도 차이가 없으며,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서 차이가 없다는 연구(Benson & Heller, 1987; Domenico and Windle, 1993; Wright and Heppner, 1991, 1993; Neff, 1994; Mintz, Kashubeck and Tracy, 1995; Benson and Heller, 1987; Carter, 2000)로 나누어지고 있다. 동일한 변수를 검증한 연구의 예를 들면, 자존감이나 우울의 경우에 ACOA와 non-ACOA가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Churchill et al., 1990; Berkowitz and Perkins, 1988; Tweed and Ryff, 1991; Webb et al., 1992; Clair and Genest, 1987; Benson and Heller, 1987)가 상반되고 있어서 ACOA가 적응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논의는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Tweed and Ryff, 1991; Werner, 1985).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알코올 중독자 자녀(COA: Children of Alcoholics)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임상문헌에 기반하는 연구들(박현선·이상균, 2000, 2001; 고병인, 1997; 고병인, 1998)과 경험적 연구들(노충래·허지인, 2004)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ACOA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임상문헌의 틀에서 이루지고 있어서(박현선, 2003; 고병인, 1997) 경험적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경험적 연구에서의 최근 경향은 ACOA의 적응에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아닌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까지 살펴보는 단계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Benson and Heller, 1987). 이러한 관점은 자녀가 부모의 알코올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그 자체가 병리적인 것을 예측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임상가들이 보는 관점들과는 매우 대조적이다(Clair and Genest, 1987: 346) 예컨대, ACOA의 적응에는 부모의 알코올 중독 이외에도 가족기능, 애착, 부모간의 갈등, 사회적 지지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Carter, 2000; Benson and Heller, 1987). 그리하여 부모의 알코올 중독 요인을 포함한 다른 요인들과 ACOA의 적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알코올 중독자 가정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대처기제”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들(Clair and Genest, 1987; el-Guebaly and Offord, 1977; Moos and Billings, 1982)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모든 ACOA가 비적응적이지 않다면, ACOA의 적응을 돕는 매개변수나 조절변수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Clair and Genest, 1987).

일반적으로 알코올 중독자 가족에서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보다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가 많으며,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의 성에 따라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고, 또한 자녀의 성에 따라서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미치는 영향의 질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Hibbard, 1989)는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지금까지의 ACOA에 관한 연구들은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성 ACOA에 관한 연구가 간과되어 왔다는 비판(Benson and Heller, 1987: 305)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 재학중인 여성 ACOA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ACOA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단일요인은 여성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요인 외에 다른 요인들이 여성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들 요인들은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2. 이론적 배경

1) 적응유연성 관점에서 본 ACOA의 특성

알코올 중독자 자녀에 관한 연구는 임상문헌에 근거한 병리적인 관점에서 어려운 역경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적응유연성(resilience) 관점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에서 성장한 ACOA의 지위 자체로 인하여 적응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라는 논리에 대한 검토를 넘어서, ACOA의 적응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 이유는 모든 ACOA가 적응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ACOA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보아 사회사업적 개입함의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ACOA 지위 자체로 '적응을 잘 한다' 혹은 '잘 못한다'라는 논리는 결정론적인 시각이어서 사회사업 가치와도 위배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적응유연성 관점에서 경험적 연구방법으로 여대생 ACOA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Black(1981)이나 Wegscheider-Cruse(1985), Woititz(1983) 등과 같은 임상이론가들은 임상에서 나온 이론을 가지고 ACOA들을 소개하였다. 즉, ACOA들은 일반가정의 성인자녀에 비하여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대인관계에서 혼란스럽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또한 ACOA는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려워하며, 외로워하며, 자존감도 낮으며, 알코올이나 약물사용을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Martin, 1995).¹⁾

반면에 ACOA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집단이긴 하지만, 이들에게서는 일괄적이고 공유하고 있는 병리적인 현상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ACOA들의 역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Black, 1981; Webb, 1983: 170-171 재인용), 최근에 와서는 성공적으로 잘 적응하는 ACOA에 관한 연구들(el-Guelbaly, 1983; Tweed and Ryff, 1991)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2) ACOA의 적응과 관련된 요인들

임상이론가들이 ACOA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단일요인으로

1) 임상문헌에서 기술하는 ACOA에 관한 특성은 노충래 & 허지인의 알코올 중독자 자녀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한국아동복지학, 16, 2003, 101-103)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 자녀의 특성 중 알코올 중독자 자녀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

보았다면, 경험적 연구자들은 ACOA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요인이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경험적으로 입증해 보이고자 하였다. ACOA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 중에 애착을 주목할 수 있다. 애착이론은 초기에는 초기아동기에 집중적으로 연구되었지만 이후 성인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Bowlby(1988)와 Ainsworth(1989)에 의하면, 애착유대는 생활주기를 통하여 인간행동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안정된 애착(secure attachment)은 여러 가지 생활에서 올 수 있는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 디스트레스를 완충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Lease, 2002: 442 재인용). 즉,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에도 부모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알코올 중독자 가족환경으로 인한 디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ACOA의 적응과 애착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알코올 중독자를 아버지로 둔 중학생, 즉 COA(Children of Alcoholics)²⁾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어머니와의 애착정도가 낮으면, 청소년이 심리정서적 적응과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정, 2004: 78). 아버지와의 애착정도가 낮을 경우에도 청소년 자녀는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아버지와의 애착정도가 높을 경우에는 청소년이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vell et al., 1993; 최윤정, 2004 재인용).

부모의 알코올 중독은 부모의 성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애착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어머니와의 애착만 잘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자녀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어머니가 자녀를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여, 그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다(Markowitz, 1993: 215).

외국의 연구에서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청소년 자녀(COA)의 경우에 비교집단 청소년과 비교하여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Jaeger, Hahn and Weinraub, 2000: 268 재인용). 성인기에 있어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일 경우에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모와의 애착과 그 영향에 관해서 Jaeger, Hahn and Weinraub(2000) 등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ACOA는 non-ACOA와 비교하여 부모와 안전하지 않은 애착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COA는 일반인에 비하여 불안정한 애착 스타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안정한 애착은 우울 증상이 생기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ase, 2002: 442 재인용). 청소년 후기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자아존중감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Amsden and Greenberg(1987) 등은 부모와의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Richman and Flaherty(1987) 등은 의과대학 1학년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백지숙, 2000: 129 재인용).

2) COA(Children of Alcoholics)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 즉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를 의미하며, 18세 이상 성인자녀인 ACOA(Adult Children of Alcoholics)와는 다름.

남자대학생들의 부모와의 애착과 여자 대학생들의 부모와의 애착에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Kenny and Rice, 1995: 433 재인용).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애착의 질이 심리적 안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enny and Rice, 1995: 433 재인용).

대학생 ACOA와 non-ACOA간에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다(Lease, 2002: 442 재인용). ACOA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ACOA는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외면화된 반응을 보이고, 여성 ACOA는 내면화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Neff, 1994: 195 재인용). 이는 여성 ACOA의 적응에서 심리사회적 변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준다.

임상이론가들은 모든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은 동일하게 역기능적일 것이라고 본다. 반면에 경험적 연구자들은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은 가족기능에 있어서 가족마다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비임상 대학생 ACOA는 non-ACOA 학생집단과 비슷하게 ACOA 집단내에서 가족기능에서 많은 차이(variation)를 보이며(Wright and Heppner, 1993), 알코올 중독자가 없는 가족도 역기능적일 수 있다고 보고(Benson and Heller, 1987)하고 있으며, ACOA는 non-ACOA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가족기능 수준이 낮다는 보고도 있다(Clair and Genest, 1987). Werner and Broida(1991)는 ACOA는 non-ACOA에 비하여 가족기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ACOA의 지위와 낮은 자존감이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ACOA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지만, 부모의 알코올 중독 이외에 가족기능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는 ACOA와 non-ACOA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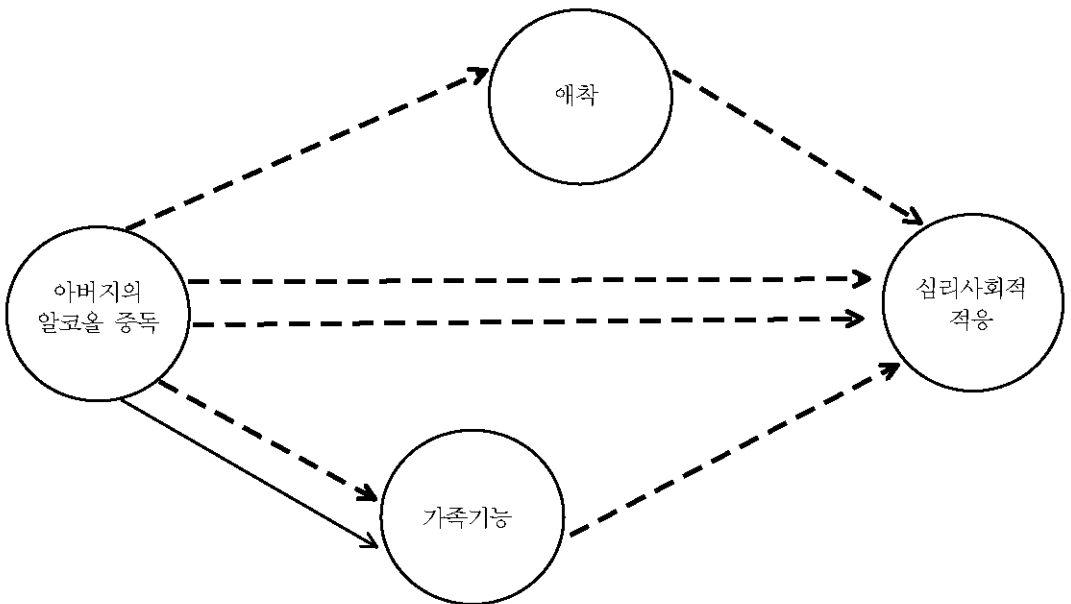
임상이론가들은 알코올 중독과 가족간의 부조화(family discord)는 공존한다고 본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은 물론이거니와 가족간의 부조화도 없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의 유무와는 별개로 알코올 중독자 가족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없는 가족에서도 가족기능에서는 다양한 수준을 보인다.

Robitschek and Kashubeck(1999)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가족기능,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심리적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족기능을 매개하여 심리적 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thersead, Kirtgham and Wynkoop(1998) 등은 부모와의 애착이 부모의 알코올 중독과 대인관계에서의 디스트레스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Brown(1988)은 애착이 부모의 알코올 중독과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Mothersead 등(1988)은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애착과는 관련이 없으나, 부모와의 애착은 가족기능과 대인관계에서의 디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ACOA는 non-ACOA에 비하여 생활만족도가 낮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Scharff, Broida, Conway and Yue, 2004 재인용; Hall, Bolen and Webster, 1994). Gomez(2001)는 적응유연성 관점에서 잘 적응한다는 의미를 이전에 비하여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보다 만족하는 정도로 보아서, 본 연구에서도 적응을 측정하는 지표로 생활만족도를 채택하였다. 이외에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 변수로 non-ACOA와 비교하여 계속 연구된 우울, 자존감도 포함시켰다(Clair and Genest, 1987 재인용; Parker and Harford, 1988; Woititz, 1983; Churchill et al., 1990; Lease, 2002: 442 재인용).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해 보면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병행하고,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애착관계 그리고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가족기능간의 관계에서도 학자마다 주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여대생 ACOA의 경우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부모와의 애착, 가족기능, 심리사회적 적응은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단일요인은 여성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요인 외에 다른 요인들이 여성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들 요인들은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라는 연구문제와도 일치한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의 선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제시할 수 있다.



- >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가족기능, 애착의 관계
- - - - ->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가족기능,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 · · · ·>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애착,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개념 틀>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가족기능, 부모와의 애착, 여성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이다. 표본의 틀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 4년제 대학 21개교의 리스트이며, 이들 대학에 재학 중인 사회복지학 전공 여대생을 표본추출의 단위로 삼았다. 4년제 대학의 표집은 서울 및 경기지역의 4년제 대학 21개교 중 서울 소재 3개교, 경기도 소재 2개교를 유의표집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4년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회수된 463부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부실한 12부를 제외한 총 451부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학 전공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 교수의 협조를 받아 설문지의 개요를 설명한 뒤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작성은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표 3-1> 조사대상자의 표집 결과

분 류	대학교	표집결과
서 울	C대	100부
	S여대	122부
	S대	50부
	소계	272부
경 기	K대	104부
	H대	87부
	소계	191부
총 계		463부

2) 측정도구

(1) 인구학적 특성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Carter(2000)의 인구학적 배경 설문지를 한국 상황에 맞게 연구자가 번역, 수정하여 설문에 활용하였다. 설문을 통해 나이, 학년, 참여자의 알코올 사용, 부모의 알코올 사용 및 결혼지위, 부모의 음주로 인한 상담 경험, 원가족 이슈와 연관된 상담 경험을 알아보았다.

(2) 알코올 중독자 자녀 선별척도 (CAST-K)

CAST(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는 Jones(1983)가 개발한 부모의 음주와 연관된 개인의 행동, 경험, 감정 등을 사정하는 30항목의 점검 목록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미례 등(1995)이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한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The Korean Version of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의 음주에 대한 자녀의 지각, 경험, 반응을 평가하여 적어도 한 명의 알코올 중독자 부모와 살고 있는 자녀를 선별하기 위해 고안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참여자는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하고, CAST-K 척도에서 6점 이상을 얻은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자녀로 분류된다. ACOA와 통제집단인 non-ACOA를 구분하는 Carter(2000)의 연구에서 CAST 척도의 타당도 계수는 .78이었다. 아버지의 문제음주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관한 최윤정(2004)의 연구에서 CAST-K 신뢰도 계수는 .92였고, 김경빈 외(1995)에서는 .94, 민은정 외(2001)에서는 .94, 노충래·허지인(2003)의 연구에서는 .78, 김명아(2003)의 연구에서는 .83, 이상균(2003)의 연구에서는 .95였다. 본 연구에서는 CAST-K의 점수가 6점 이상인 집단을 ACOA로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CAST-K의 신뢰도 계수는 .95로 나타났다.

(3) 부모와의 애착(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PPA)

본 연구는 부모와의 애착을 알아보기 위해 Armsden and Greenberg(1987)이 사용한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의 수정판을 사용하였다. IPPA는 부모와의 애착을 어느 정도 지각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Bowlby(1969)의 애착이론에 근거를 둔다. IPPA는 애착의 정서적, 인지적 차원을 통하여 애착에 대한 지각을 사정하는데, "거의 항상 그러하다"에서 "거의 항상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IPPA의 수정판은 어머니와 아버지, 동료들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척도를 제공하고 있어서 더욱 유용하다. 원래의 IPPA는 3가지 요인 즉 신뢰, 의사소통, 소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에 와서는 하나의 합쳐진 점수로 계산되고 있기에(Armsden, 1986) 본 연구에서도 후자의 점수계산 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부모와의 애착을 부, 모 각각 27문항의 "항상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높다고 보았다.

IPPA의 수정판은 Carter(1993)의 연구에서 내적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와의 애착에서는 .87, 아버지와의 애착에서는 .89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수렴타당도의 증거는 IPPA에서 측정된 안전한 애착과 안녕,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그 외의 적응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되는 것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았다. IPPA의 수정판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윤정(2004)이 사용하였고, 이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애착의 신뢰도 계수는 .90, 아버지와의 애착의 신뢰도 계수는 .81로 나타났다. 백지숙(2000)의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애착의 신뢰도 계수는 .70, 아버지와의 애착의 신뢰도 계수는 .85, 조영주·최해림(2001)의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애착의 신뢰도 계수는 .72, 아버지와의 애착의 신뢰도 계수는 .81, 장휘숙(2002)의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애착의 신뢰도 계수는 .88, 아버지와의 애착의 신뢰도 계수는 .89였

다. 본 연구에서 IPPA는 어머니와의 애착에서 .94, 아버지와의 애착에서도 .94의 높은 신뢰도 계수를 나타냈다.

(4) 생활만족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 SWLS)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만족도(SWLS) 척도는 Diener 외(1985)가 개발한 전반적인 생활만족을 사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5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이 척도는 참여자가 외적으로 부과된 기준보다는 그들 자신의 고유한 기준이나 생활만족과 연관된 기대를 반영한다. 생활만족도는 단일요인 척도로 내적 일관성계수는 .87이고, 검사-재검사 계수는 2주에서 2개월 간격에 .82에서 .84 범주이다. 이 척도의 수렴타당도는 생활만족과 또래 사정의 다른 측정과의 SWLS 상관관계에 의해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를 연구자가 번역하여 사용하였는데, 1점으로 갈수록 강한 부정, 7점으로 갈수록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7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 본 연구에서 SWLS의 신뢰도 계수는 .76으로 나타났다.

(5) 자아존중감(Self-esteem)

참여자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측정하기 위해 로젠버그(Rosenberg)의 자존감 척도를 번역하여 설문에 사용한 이영자(1996)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로젠버그의 자존감 척도는 높은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92의 거트만 척도 재생산 계수를 갖고 있으며,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에서 동시타당도, 예측타당도, 구성체타당도가 입증된 척도이다. 로젠버그의 자존감 척도는 긍정적 자존감 5문항과 부정적 자존감 5문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 문항의 채점은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전선영, 2004). 이영자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리커트식 4점 척도로 문항이 측정되었고, 신뢰도 계수는 .79로 나타났다. 임주영·전귀연(2004)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8로 나타났고, 장휘숙(2003)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0으로 나타났다.

(6) 우울(Beck Depression Inventory : 한국판)

임상적인 우울상을 토대로 우울의 유형과 정도를 측정하는 우울 척도는 Beck(1967) 등이 개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 문항을 이영호(1993)가 번역하여 사용한 BDI 한국판을 설문에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후군 21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고, 점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상태를 나타낸다. Beck, Steer and Garbin(1988)이 임상과 비임상 표본에 사용한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6이고, 2주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0, 4개월 후엔 .62로 나타났다(Lease, 2002). BDI 한국판을 대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에 활용한 이영호(199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8, 이영자(1996)의 신뢰도는 .81이었다. 본 연구에서 우울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7) 가족환경척도(Family Environment Scale : FES)

최초로 개발된 가족사정척도인 가족환경척도는 스탠포드 대학의 Moos(1974)가 개발한 척도로, 이 모델은 사회적 분위기관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으며, 가족환경은 가족행동을 규제하고 주도해 나간다는 두 가지 전제하에 개발되었다(김유숙 외, 2003). 이 척도는 개인과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을 평가하는 것으로, 가족환경에 대한 지각, 이상적인 가족환경, 가족환경에 대한 기대의 세 척도가 있고, 이 세 척도는 '예', '아니오' 응답방식의 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10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진 총 27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Moos의 27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가족환경척도의 신뢰도는 .61-.78이다.

그러나 Moos의 가족환경척도는 폭넓은 가족기능을 측정하고, 가족환경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척도가 너무 길어 응답시간이 오래 걸리며, 10개의 하위 척도가 모두 가족기능을 설명하는데 설명력이 있는 중요한 개념인가 하는 단점이 있다(김유숙 외, 2000).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현재 가족환경에 대한 지각을 다른 가족환경척도 90문항이 자주 사용되고 있고, 관계영역, 개인적 성장영역, 체계유지 영역 90문항 중에서 연구목적에 따라 임의로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Werner and Broida(1991)는 90개 문항 가운데 10개 문항을 추출하여 연구하였으며, 그들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7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영역 항목 중 응집성 9문항, 표현성 9문항, 갈등 9문항, 개인적 성장영역 중 독립성 9문항, 성취지향성 9문항 등, 총 45개 문항을 설문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FES의 총 신뢰도 계수는 .58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 검토 작업을 고친 후 SPSS 11.5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알코올 중독 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모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의 내적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문에서는 자료를 표준화시킨 후에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평가하는 회귀계수(β)를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의 모든 분석에서의 유의수준은 $p < .05$ 수준으로 하였다.

4. 연구결과

1) 인구학적 특성

전체 참여자 451명 가운데 무응답 7명을 제외하면, ACOA가 160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ACOA와 non-ACOA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참여자의 학년을 살펴보면 ACOA의 경우 1학년이 18명(11.3%), 2학년이 38명(23.8%), 3학년이 66명(41.3%), 4학년이 38명(23.8%)이었고, non-ACOA의 경우 1학년이 41명(14.4%), 2학년이 61명(21.5%), 3학년이 99명(34.9%), 4학년이 83명(29.2%)이었다.

참여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ACOA의 경우 연령의 범주는 만 18세부터 만 32세로 나타났으며 중앙값이 21세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9세 이하가 26명(16.4%), 만 20세가 37명(8.3%), 만 21세가 34명(7.7%), 만 22세가 25명(5.6%), 만 23세 이상이 37명(8.3%)으로 나타났다. non-ACOA의 경우 연령의 범주는 만 18세부터 만 36세로 나타났으며 중앙값이 21세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만 19세 이하가 46명(16.3%), 만 20세가 69명(24.4%), 만 21세가 51명(18.0%), 만 22세가 48명(17.0%), 만 23세 이상이 69명(24.4%)이었다.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인식하는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ACOA의 경우 160명 가운데, 102명이 자신의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성별로 살펴보면, 102명 가운데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1명(10%),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91명(89.2%)으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보는 비율의 약 9배 이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non-ACOA로 판명된 경우에, 참여자 10명 가운데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응답한 경우가 5명(1.76%),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응답한 경우가 5명(1.76%)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알코올 중독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ACOA로 판명된 경우에, 자신의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으로 인식하는 참여자 102명 가운데 7명(7.4%)만이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인식한 11명의 경우는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상담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알코올 문제가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 상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 인구학적 특성

구분	내용	ACOA			non-ACOA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학년	1학년	18	11.3	11.3	41	14.4	14.4
	2학년	38	23.8	23.8	61	21.5	21.5
	3학년	66	41.3	41.3	99	34.9	34.9
	4학년	38	23.8	23.8	83	29.2	29.2
	계	160	100.0	100.0	284	100.0	100.0
연령	만 19세 이하	26	5.9	16.4	46	10.0	16.3
	만 20세	37	8.3	23.3	69	16.0	24.4
	만 21세	34	7.7	21.4	51	11.0	18.0
	만 22세	25	5.6	15.7	48	10.0	17.0
	만 23세 이상	37	8.3	23.3	69	15.5	24.4
부모의 문제 음주 인식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	11	6.8	10.8	5	1.76	50.0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91	56.9	89.2	5	1.76	50.0
	계	102	14.2	100.0	10	3.52	100.0
	무응답	58	36.3		274	96.48	
	총계		100.0			100.0	
부모의 알코올 중독 상담 여부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 상담	-	-	-	-	-	-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상담	7	7.4	100.0	1	11.1	100.0
	계	7	7.4	100.0	1	11.1	100.0
	무응답	95	92.6		9	88.9	
	총계		100.0			100.0	
가족 상담 여부	상담한 적 있다	4	2.5	2.5	9	3.2	3.2
	상담한 적 없다	156	97.5	97.5	272	95.8	96.8
	계	160	100.0	100.0	281	98.9	100.0
	무응답				3	1.1	
	총계				284	100.0	
부모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본인의 상담여부	상담한 적 있다	2	1.9	1.9	2	20	20
	상담한 적 없다	100	98.1	98.1	8	80	80
	계	102	100.0	100.0	10	100.0	100.0
부모의 결혼지위	결혼한 부부	145	90.6	90.6	276	97.2	98.2
	이혼	13	8.1	8.1	4	1.4	1.4
	동거	0	0	0	0	0	0
	별거	2	1.3	1.3	1	.4	.4
	계	160	100.0	100.0	281	98.9	100.0
	무응답				3	1.1	
	총계				284	100.0	
본인의 성장형태	부모님과 살았다	145	90.6	90.6	272	95.8	96.5
	어머니하고만 살았다	4	2.5	2.5	5	1.8	1.8
	아버지와 재혼한 어머니/아버지의 동거녀와 살았다	2	1.3	1.3	-	-	-
	어머니나 아버지 누구와도 살지 않았다	3	1.9	1.9	-	-	-
	기타	6	3.8	3.8	5	1.8	1.8
	계	160	100.0	100.0	282	99.3	100.0
	무응답				2	.7	
	총계				284	100.0	

한편 non-ACOA로 판명된 경우에,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응답한 5명의 경우에도 모두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과 관련하여서는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었으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으로

인식한 5명의 경우에는 1명만이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알코올 중독 이외의 일반적인 가족 문제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은 결과, ACOA의 경우, 참여자 160명 가운데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4명(2.5%)이었으며, non-ACOA의 경우, 참여자 284명 중에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9명(3.2%)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본인이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ACOA의 경우,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인식한 102명 가운데 자신이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2명(1.9%)이었으며, non-ACOA의 경우,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인식한 10명 가운데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2명(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지위를 살펴보면, ACOA의 경우, 결혼한 부부가 145명(90.6%), 이혼한 경우가 13명(8.1%)이었으며, 별거가 2명(1.3%)으로 나타났으며, non-ACOA의 경우, 결혼한 부부가 276명(97.2%), 이혼한 경우가 4명(1.4%)으로 나타나 non-ACOA에 비해 ACOA의 부모의 결혼지위가 다소 더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ACOA들이 non-ACOA들보다 이혼이나 별거를 하는 가족배경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Tweed & Ryff, 1991: 134).

본인의 성장형태를 살펴본 결과, ACOA의 경우, 부모님과 같이 산 경우가 145명(90.6%), 어머니하고만 산 경우가 4명(2.5%), 아버지 그리고 재혼한 어머니와 산 경우가 2명(1.3%), 어머니나 아버지 누구와도 살지 않은 경우가 3명(1.9%), 기타 6명(3.8%)으로 나타났다. 한편 non-ACOA의 경우, 부모님과 같이 산 경우가 272명(96.5%), 어머니하고만 산 경우가 5명(1.8%), 기타 5명(1.8%)으로 나타나, non-ACOA에 비해 ACOA의 성장형태가 다소 더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2) 분석결과: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가족기능, 부모와의 애착,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문제를 고려하여 세 가지 유형의 선으로 구분된 개념들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가족기능, 부모와의 애착 간의 관계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ACOA의 부모와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ACOA의 아버지와의 애착과 어머니와의 애착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아버지와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의 F값은 11.391($p < 0.001$)로, 설명력은 7.2%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어머니와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의 F값은 3.822($p < 0.05$)로, 설명력은 2.5%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와의 애착에 대한 알코올 중독의 β 값이 -0.256 ($p < 0.001$), 어머니와의 애착에 대한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의 β 값이 -0.145 ($p < 0.01$)로 나타났다.

<표 4-2>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부모와의 애착과의 관계

구 분	아버지와의 애착		어머니와의 애착	
	베타	t	베타	t
연령	-.069	-1.313	.061	1.145
학년	.090	1.724	.006	.121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여부	-.256	-5.580***	-.145	-3.072**
R ²	.072		.025	
수정된 R ²	.066		.019	
F	11.391***		3.822*	

*p<0.05, **p<0.01, ***p<0.001

Broussard(1998)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부모와의 애착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부모와의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부모와의 애착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정, 2004 재인용).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알코올 중독이 아버지와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와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윤정(2004)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어머니와의 애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어머니와의 애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표 4-3>에서 볼 수 있듯이 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여부가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임상문헌에서는 알코올 중독자 가정을 역기능적인 가족이라고 간주하고, 경험적 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자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역기능적인 가족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Robitschek and Kashubeck(1999)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가족기능,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심리적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족기능을 매개하여 심리적 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가족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가족기능과의 관계

구 분	가족기능	
	베타	t
연령	-.056	-1.027
학년	.084	1.556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여부	-.027	-.578
R ²	.006	
수정된 R ²	.000	
F	.947	

가족기능이 ACOA의 부모와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표 4-4>를 살펴보면, 가족기능은 ACOA의 아버지와의 애착과 어머니와의 애착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기능이 아버지와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의 F값은 23.934($p < 0.001$)로, 설명력은 14.0%로 나타났으며, 가족기능이 어머니와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의 F값은 17.392($p < 0.001$), 설명력은 10.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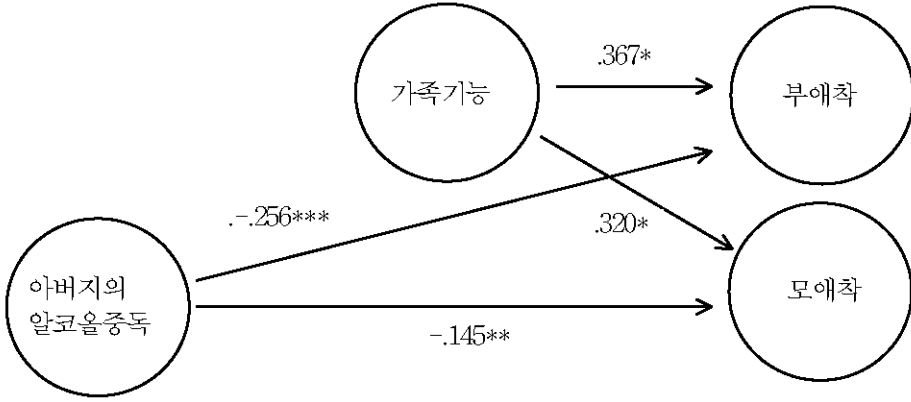
가족기능이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애착에 대한 가족기능의 β 값이 .367($p < 0.001$), 어머니와의 애착에 대한 가족기능의 β 값이 .320($p < 0.001$)으로 나타나, 가족기능이 아버지와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머니와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큰 소한 차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가족기능과 부모와의 애착과의 관계

구 분	아버지와의 애착		어머니와의 애착	
	베타	t	베타	t
연령	-.043	-.854	.082	1.596
학년	.057	1.129	-.022	-.421
가족기능	.367	8.278*	.320	7.068*
R ²	.140		.106	
수정된 R ²	.134		.100	
F	23.934*		17.392*	

* $p < .001$

따라서 <개념틀>에서 제시된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가족기능, 애착의 관계(————→ 로 표시된 관계)’를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ACOA의 부모와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가족기능이 매개적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단지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가족기능이 ACOA의 부모와의 애착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가족기능, 애착 간의 관계 모형

(2)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가족기능,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표 4-5>에서 볼 수 있듯이, ACOA의 자존감, 생활만족, 우울, 음주문제 등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설명하는 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도 앞의 <표 4-3>에서 볼 수 있듯이 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4-5>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구 분	자존감		생활만족		우울	
	베타	t	베타	t	베타	t
연령	-.010	-1.177	.015	.274	-.021	-.388
학년	.106	1.973	.044	.812	-.022	-.413
알코올 중독	-.057	-1.209	-.086	-1.802	.089	1.866
R ²	.014		.010		.009	
수정된 R ²	.007		.003		.003	
F	2.038		1.500		1.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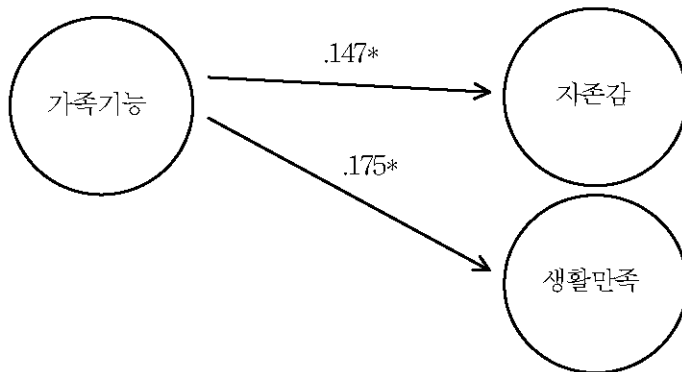
한편, 가족기능이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표 4-6>에서 살펴보면, 가족기능이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은 심리사회적 적응 가운데 자존감과 생활만족의 경우에만 유효하고 우울을 설명하는 모형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족기능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의 F값은 4.821(p<0.01), 모형의 설명력은 3.2%로 나타났으며, 가족기능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의 F값은 5.036(p<0.01), 모형의 설명력은 3.3%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이 자존감과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존감에 대한 가족기능의 β값이 .147(p<0.01), 생활만족에 대한 가족기능의 β값이 .175(p<0.001)로 나타났다. 즉, 가족이 기능적일 수록 ACOA는 자존감이 높고,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가족기능과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구 분	자존감		생활만족		우울	
	베타	t	베타	t	베타	t
연령	.000	-.005	.026	.491	-.026	-.482
학년	.094	1.747	.028	.531	-.016	-.303
가족기능	.147	3.118*	.175	3.718**	-.060	-1.268
R ²	.032		.033		.005	
수정된 R ²	.025		.027		-.002	
F	4.821*		5.036*		.750	

* p<0.01, ** p<0.001

따라서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가족기능,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가족기능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개념틀>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가족기능,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로 표시된 관계)’를 검증한 결과,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 중에서 자존감과 생활만족에만 가족기능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은정 외(2001)의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이 약할수록 자녀의 우울과 불안의 정도가 심하였고, 자존감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이 기능적일수록 ACOA는 자존감이 높으며,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은정 외(2001)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우울에는 가족기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은정 외(2001)의 연구결과에서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ACOA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ACOA의 적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민은정 외(2001)의 연구 이외에도 Fisher 외(2000), Dooley(1996)의 연구에서도 알코올 중독보다는 가족기능이 ACOA의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ACOA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가족기능이 ACOA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로 보아, 알코올 중독과 가족기능과의 관계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림 4-2>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가족기능,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모형

(3)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부모와의 애착,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ACOA의 부모와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은 앞의 <표 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아버지와의 애착과 어머니와의 애착에 영향을 미칠 때, 음의(-)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vell외의 연구에서도 알코올 중독 아버지의 청소년 자녀들은 비교집단 자녀들보다 아버지와의 안전한 애착관계를 덜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Cavell et al, 1993; Jaeger et al, 2000 재인용).

ACOA의 부모와의 애착이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표 4-8>과 같다. <표 4-8>에서 알 수 있듯이, ACOA의 부모와의 애착은 ACOA의 자존감과 생활만족, 우울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COA의 부모와의 애착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의 F값은 16.160($p<0.001$)으로, 설명력은 12.8%로 나타났으며, ACOA의 부모와의 애착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의 F값은 24.137($p<0.001$)로, 설명력은 18.0%로 나타났다. ACOA의 부모와의 애착이 자존감, 생활만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존감에 대한 아버지와의 애착의 β 값이 .253($p<0.001$), 어머니와의 애착의 β 값이 .147($p<0.01$)로 나타나, ACOA의 자존감에 있어 어머니와의 애착보다 아버지와의 애착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에 대한 아버지와의 애착의 β 값은 .240($p<0.001$), 어머니와의 애착의 β 값은 .258($p<0.001$)로 나타나, 생활만족의 경우는 아버지와의 애착보다 어머니와의 애착의 영향력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대한 아버지와의 애착의 β 값이 -.153($p<0.01$), 어머니와의 애착의 β 값이 -.134($p<0.05$)로 나타나, ACOA의 우울에 있어 어머니와의 애착보다 아버지와의 애착의 영향력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부모와의 애착과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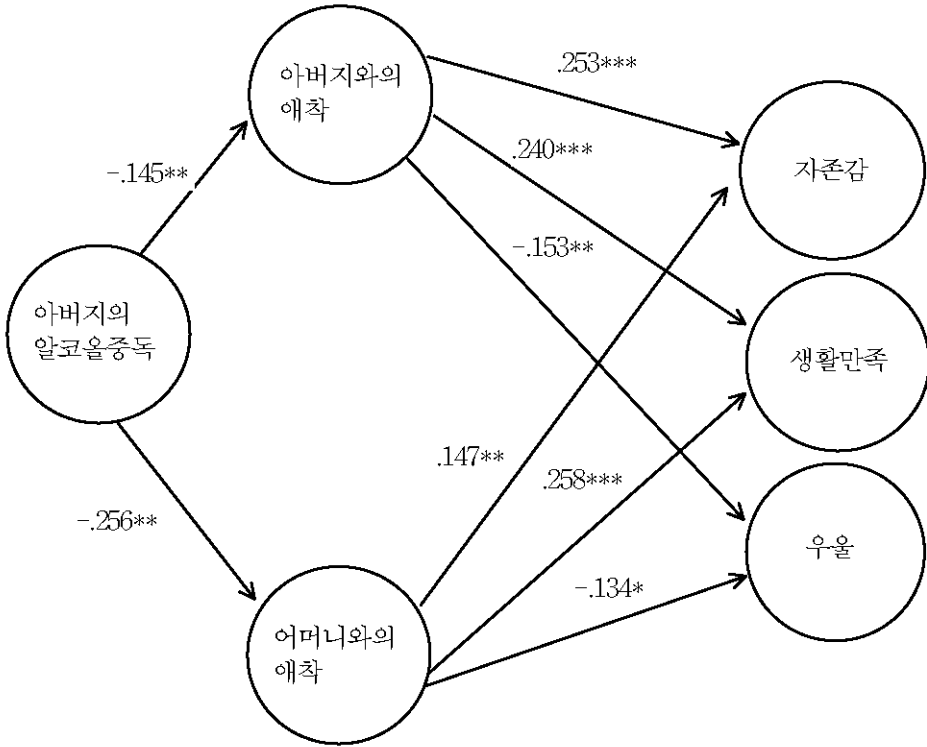
구 분	자존감		생활만족		우울	
	베타	t	베타	t	베타	t
연령	-.002	-.035	.015	.306	-.024	-.451
학년	.083	1.628	.021	.419	-.007	-.139
아버지와의 애착	.253	5.088***	.240	4.966***	-.153	-2.968**
어머니와의 애착	.147	2.953**	.258	5.343***	-.134	-2.598*
R ²	.128		.180		.061	
수정된 R ²	.120		.173		.052	
F	16.160***		24.137***		7.105***	

* $p<0.05$, ** $p<0.01$, *** $p<0.001$

Rice(1995) 등도 일관성 있는 부모와의 애착은 더 높은 자존감, 더 큰 삶에 대한 만족, 더 나은 대학생활에서의 적응, 더 적은 심리적 괴로움, 더 큰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장휘숙, 2002 재인용).

따라서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부모와의 애착,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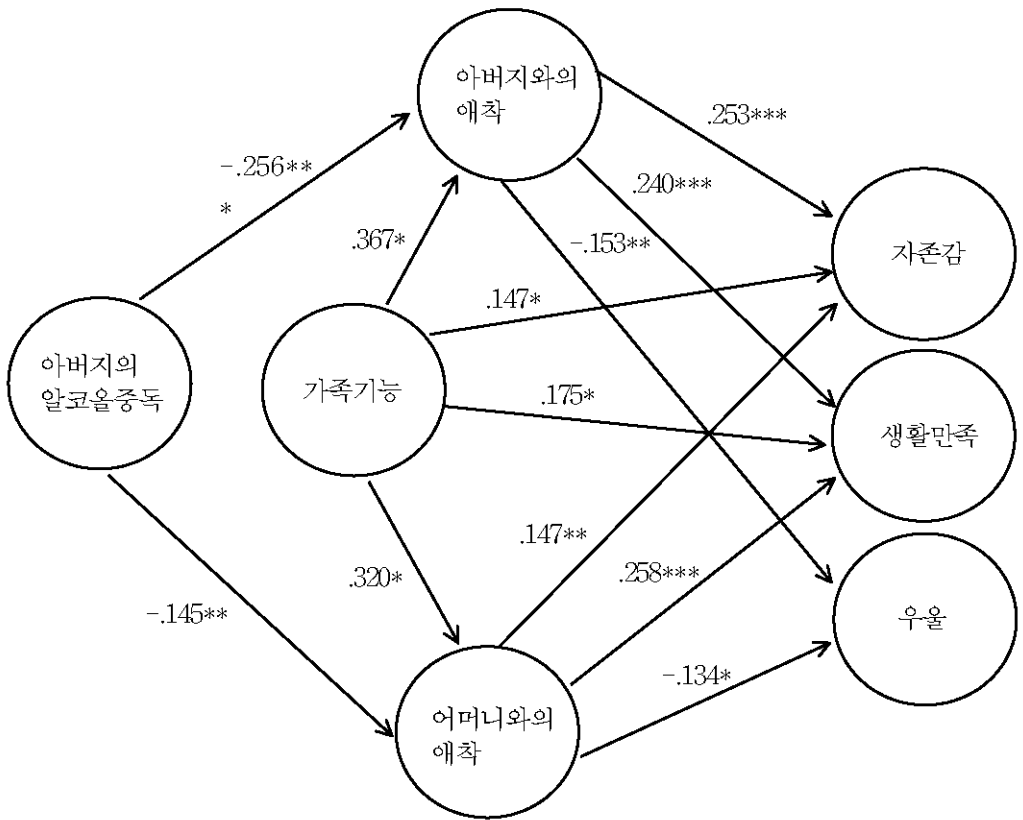
알코올 중독이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부모와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와의 애착은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 중인 자존감과 생활만족과 우울 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3>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부모와의 애착,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모형

지금까지 <개념틀>을 통해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가족기능, 부모와의 애착 및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그림 4-4>의 관계 모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즉,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가족기능이나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못하였으나, 부모와의 애착에는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기능은 부모와의 애착과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 가운데 자존감과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기능이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부모와의 애착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임상 문헌에서 주장하는 내용처럼,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ACOA의 지위 그 자체가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설명하는 단일 변수라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경험적 연구자들의 논리가 입증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만으로 자녀가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며, 임상 문헌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과가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4>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가족기능, 부모와의 애착,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최종 관계 모형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사회복지학 전공 여대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여성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여성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있는가? 만일 있다면, 여성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알아보았다. 여성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선행연구 검토를 근거로 하여 자존감과 우울, 생활만족 등으로 보았다.

ACOA는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보았던 임상문헌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여성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여러 변수들 중에서 가족기능과 부모와의 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

모와의 애착은 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가족기능과 여성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증에서 자존감과 생활만족과의 관계에서만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scher 외(2000)는 부모의 알코올 중독보다는 가족의 역기능이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더 강력한 변수로 보고하였다. Dooley(1996)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역기능이 부모의 알코올 중독보다 우울이나, 자존감,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가족기능은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Fischer 외(2000)의 보고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의미있게 연관을 지워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제제기에서 예상하였듯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참여자의 36%인 160명이 여성 ACOA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편의상 서울 및 경기지역에 있는 4년제 대학 5개교를 유의표집을 하였는데,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와 ACOA의 성에 따라 ACOA의 적응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는 자녀가 18세 이전에 심각한 심리사회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이고 자녀가 아들인 경우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고 자녀가 딸인 경우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Werner, 1985).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여대생 ACOA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후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의 여성 ACOA와 남성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어떠한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 남성 ACOA의 적응은 어떠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에서 부모와의 애착만을 조사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에서는 알코올 중독자의 노모들이 손자녀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아서, 애착의 대상을 어머니와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본인의 인생에 영향을 준 유의미한 타자 등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는 참여자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임상에서 접할 수 있는 ACOA는 지역사회에 있는 비임상 ACOA보다 적응에서 어려움이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Carter, 2000), 엄격한 의미에서 앞으로의 ACOA 연구는 지역사회에 있는 비임상 ACOA는 물론이거니와 임상현장에 있는 ACOA도 연구의 대상에 모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론적 함의와 관련하여, 통제변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간의 갈등의 영향을 통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부모간의 갈등 수준이 매우 높거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일관성을 보이지 않을 때에 성인자녀가 비적응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Benson and Heller, 1987: 310). 또 다른 통제변수로 가족에서 신체적 학대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알코올 중독과 폭력이 둘 다 공존하는 경우와 알코올 중독만이 있을 경우, 전자가 적응에서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천적 함의와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여성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에 가족기능과 부모와의 애착은 여성 ACOA의 심리사회적 적응 중에서도 자존감과 생활만족하고만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여성 ACOA의 적응을 돕기 위한 사회사업적 실천함의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에 개입하기보다는 가족기능을 강화시키거나 부모와의 애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기능강화는 지역사회복지관의 3대 사업 중의 하나로, 본 연구의 결과로 보아 여성 ACOA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여성 ACOA의 경우 가족기능이 향상될수록 부모와의 애착은 긍정적으로 되며, 자존감이 높아지며 우울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의 생각에는 가족 강화프로그램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경우에도 그 효과가 입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프로그램이어서 앞으로 지역사회복지관에서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그리고 연구자가 관여하고 있는 여성 ACOA를 위한 프로그램은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의 가족기능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 ACOA를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기 때문에, ACOA를 위한 자조모임인 Al-Anon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자 부인들은 알코올 중독자 남편의 안녕에 관한 욕구가 강하여(김혜련, 2001), 알코올 중독자 남편과의 분리를 기본 모임의 골자로 삼고 있는 Al-Anon과는 조화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의 ACOA도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의 관계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Al-Anon의 철학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Al-Anon 가족 집단의 성원이었던 ACOA들이 Al-Anon이 본인들에게는 긍정적이었으나,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와의 관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어서(Cutter & Cutter, 1987), 우리나라 ACOA들의 욕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여성 ACOA의 경우에 아버지와의 애착이 긍정적일수록 여성 ACOA의 적응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ACOA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개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와의 애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의 분리를 강조하는 Al-Anon의 철학은 본 연구결과와 상충되는 셈이 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하였듯이 사회복지학을 전공으로 하는 여대생의 1/3 가량이 ACOA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의 아동기 경험이 사회복지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남겨 주었다. 이러한 경우에 사회복지 실천에서 전이-역전이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취약한 아동기 경험이 실천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역기능적인 가족 배경을 가진 것이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실천에 긍정적이 되게도 한다는 연구결과도 함께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적응유연성 틀에서 알코올 중독자 가족 배경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이전 경험이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Coombes and Anderson, 2000). 이와 동시에 여성 ACOA들이 자신을 착취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보인다는 연구결과(Lyon and Greenberg, 1991)도 있다. 알코올 중독 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의 경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에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여대생 혹은 사회복지실천을 하는 여성 사회복지사에 관한 더욱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 고병인. 1997.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성인아이들의 특징들(1)". 『한세대 교수논총』T0: 126-151.
- 고병인. 1998.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성인아이들의 특징들(2)". 『한세대 교수논총』T2, pp.173-195.
- 김미혜 · 임연옥 · 권금주 · 김혜선. 2004. "성공적 노후를 위한 성인자녀에 대한 기대". 『한국가족복지학』~13: 43-75.
- 김학주. 2002. "성인자녀와의 동거여부와 우울증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51: 141-156.
- 김혜련. 2001. "알코올 중독자 수발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춘계학술대회 자유논문 4-2분과: 394-413.
- 노충래 · 허지인. 2004. "알코올 중독자 자녀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99-133.
- 박현선 · 이상균. 2001. "알코올 중독자 가정 청소년 자녀의 성인아이 성향과 심리사회적 문제". 『한국사회복지학』~46: 118-144.
- 박현선. 2003. "문제성 음주자 가정에서 성장한 성인자녀의 아동기 역할유형이 ACOA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57-80.
- 백지숙. 2000.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T8(1): 1-11.
- 엄명용. 2001. "가족(성인자녀)에 의한 노인부양의 종류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전(원) 가족관계 양상 분석 및 개입전략의 제시". 『한국사회복지학』~47: 201-242.
- 이상균 · 박현선. 2000. "소년소녀가장의 성인역 아동(adult children) 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T6: 143-164.
- 이상균. 2003. "알코올 중독자 가정 자녀의 역할유형과 심리사회적 문제". 『한국아동복지학』~T6: 195-224.
- 장휘숙. 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T5(1): 101-121.
- 전선영. 2004.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복지 가치 및 옹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윤정. 2004. "아버지의 문제음주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enson, C. S. and K. Heller. 1987. "Factors in the current adjustment of young adult daughters of alcoholic and problem drinking fath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4): 305-312.
- Berkowitz, A. and H. W. Perkins. 1988.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206-209.
- Black, C. 1981. "It will never happen to me, Denver, CO: M.A.C". Printing and Publications Division.
- Broussard, D. B. 1998. "Attachment to Parents as Mediator and/or Moderator of Psychosocial Functioning among Young Adults with Alcoholic Fathers." The University of Arizona. Ph. D. Dissertation.
- Carter, A. L. 2000. "The role of resilience in the adjustment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 D. Dissertation.
- Cavell, T. A., D. C. Jones, R. D. Runyan, L. P. Constantin-Page, and J. M. Velasquez. 1993.

- "Perception of attachment and the adjustment of adolescent with alcoholic fath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2): 204-212.
- Churchill, J. C., J. P. Broida, and Nicholson. 1990.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1(4): 373-375.
- Clair, D. and M. Genest. 1987.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adjustment of offspring of alcoholic father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8(4): 345-355.
- Coombes, K. and R. Anderson. 2000. "The impact of family of origin on social workers from alcoholic families".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28(3): 281-302.
- Cutter, C. G. and H. G. Cutter. 1987. "Experience and change in Al-Anon family groups: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8(1): 29-32.
- Domenico, D. and M. Windle. 1993.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function among middle-aged female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4): 659-666.
- Dooley, S. Y. 1996. "A comparison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 families with adult children from non-alcoholic families: A replication." Univ. of North Texas. Ph. D. Dissertation.
- El-Guebaly, N. 1983. "The offspring of alcoholics: outcome predictors". *Journal of Children in Contemporary Society Series* 15: 3-12.
- Fischer, K. E., M. Kittleson, R. Ogletree, K. Welshimer, P. Woehlike and J. Benshoff. 2000.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alcoholism and family dysfunction to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8: 151-156.
- Gomez, W. E. 2001. "Resiliency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n exploratory study". California State University. B.A.
- Greene, R. R. 2002. "Human Behavior Theory: a resilience orientation". in R. R. Greene(Ed.). *Resiliency: an integrated approach to practice, policy and research*. NASW Press.
- Hall, C. W., L. M. Bolen, and P. E. Webster. 1994. "Adjustment issues with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5): 786-792.
- Hibbard, S. 1989. "Personality and object relational pathology in young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Psychotherapy* 26: 504-509.
- Jaeger, E., N. B. Hahn, and M. Weinraub. 2000. "Attachment in adult daughters of alcoholic fathers". *Addiction* 95(2): 267-276.
- Kenny, M. E., and K. G. Rice. 1995. "Attachment to parents and adjustment in late adolescent college students: current status, applications, and future consider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3): 433-456.
- Lease, S. H. 2002. "A Model of depression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nd nonalcoholic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 441-451.
- Lyon, D., and J. Greenberg. 1991. "Evidence of codependency in women with an alcoholic parent: helping out Mr. Wro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3): 435-439.
- Markowitz, R. 1993. "Dynamics and treatment issues with children of drug and alcohol abusers." in Shulamith Lala Ashenberg Straussner (Ed.). *Clinical Work with Substance-Abusing Clients*. Guilford Press: 214-229.

- Martin, J. I. 1995. "Intimacy, loneliness, and openness to feelings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Social Work* 52-59.
- Mintz, L. B., S. Kashubeck, L. S. Tracy. 1995. "Relations among parental alcoholism, eating disorders, and substance abuse in nonclinical college women: Additional evidence against the uniformity myt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1): 65-70.
- Moos, R. and A. Billings. 1982. "Children of alcoholics during the recovery process: alcoholic and matched control families". *Addictive Behaviors* 7: 155-163.
- Mothersead, P. K. and D. M. Kivlighan. 1998. "Attachment, family dysfunction, parental alcoholism, and interpersonal distress in late adolescence: A structural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2): 196-203.
- Neff, J. A. 1994. "Adult children of alcoholic or mentally ill parents: alcohol consump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a tri-ethnic community study". *Addictive Behaviors*: 185-197.
- Parker, D. A. and T. C. Harford. 1988. "Alcohol-related problems, marital disrup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dult children of alcohol abuser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9(4): 306-313.
- Rice, K. G., D. P. FitzGerald, T. J. Whaley, and C. L. Gibbs. 1995.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Development* 73: 463-474.
- Robitschek, C. and S. Kashubeck. 1999. "A structural model of parental alcoholism, family functioning, and psychological health: The mediating effects of hardiness and personal growth orient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2): 159-172.
- Scharff, J. L., J. P. Broida, K. Conway, and A. Yue. 2004. "The interaction of parental alcoholism, adaptation role and familial dysfunction". *Addictive Behaviors* 29: 575-581.
- Tweed, S. H., and C. D. Ryff. 1911.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profiles of wellness amidst distres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2: 133-141.
- Webb, W., P. Post, B. Robinson, and L. Moreland. 1992. *Journal of Alcohol and Drug Education* 38: 106-114.
- Werner, E. E. 1985. "Resilient offspring of alcoholics: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ge 18".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7(1): 34-40.
- Werner, L. J. and J. P. Broida. 1991. "Adult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as a function of familial alcoholism and dysfunctio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2(3): 249-252.
- Woititz, J. G. 1983.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Hollywood, FL. Health Communications, Inc.
- Wright D. M. and P. P. Heppner. 1993. "Examining the well-being of nonclinical college students: Is knowledge of the presence of parental alcoholism usefu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93. 40(3): 324-334.

The Relationship of Father's Alcoholism, Family Functioning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the Adult Daughters of Alcoholic Fathers

Kim, Hae-Ryun
(Seoul Women's University)

Jeon, Sun-Young
(Seoul Women's University, Instructor)

Kim, Jung-Hee
(Seoul Women's University, Instru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urther understanding of variables, besides father's alcoholism, which relates to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ADAF(adult daughters of alcoholic father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alcoholism, family functioning, parental attachment and the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the ADAF. From a larger sample of 463 female college students, 160 ADAF and a matched group of non-ADAF were identifi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This survey was conducted in Seoul and Gyungi-do area.

Participants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The Korean Version of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elf-esteem", "Beck Depression Inventory" and "Family Environment Scale".

Path analyses was used to test the research question. Findings indicated that father's alcoholism had no direct effect on both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the ADAF and the family functioning. But father's alcoholism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arental attachment. Family functioning was significant predictor of attachment to parents as well as psychosocial adjustment. Finally family functioning is important cause for parental attach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specifically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utcomes only. Therefore parental attachment was function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father's alcoholism did not predict outcome.

We need to reconsider the assumption that direct link exists between adult adjustment difficulties and the presence of father's alcoholism. Implications for clinical and theoretical work with ADAF are discussed.

Key words: Adult daughters of alcoholic fathers, father's alcoholism, psychosocial adjustment, family functioning, parental attachment

[접수일 2004. 9. 8. 게재확정일 2004. 10. 22.]